애완조류의 임상

— 기초검사와 병력청취 —

이 창 원

세계적으로 약 8600종의 다양한 새가 존재하며 이 중 수백종이 애완조류로 사랑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애완조류의 수가 늘어나고 있으나 이에 반해 조류 임상은 무지의 상태라 할 수 있다. 소동물에서와 마찬가지로 조류 임상에서도 병력청취와 기초검사가 적절한 진단과 진료를 위해 상당히 중요하다.

재료 및 방법

병력청취는 보통 전화통화로 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전화상에서 병의 정도를 파악하기란 상당히 어렵다. 축주가 뛰어난 관찰력을 갖고 있지 않다면 대부분의 경우 초기단계에서 증상을 파악하지 못해 전화를 받았을 때가 되면 증상은 이미 악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축주에게 환조(患鳥)를 보지 않고는 실질적인 진단과 치료가 어려우므로 검사를 위해 내원하도록 권한다.

축주에 대한 지시사항 : 환조를 병원으로 운반할 때 다음 사항을 일러주고 꼭 지키도록 해야 한다.

1. 새장 전체를 갖고 오도록 한다. 새장을 가지고 올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새장이 없는 상태에서의 운반은 안전하지 않으므로 적절한 운반상자에 갖고 오도록 한다.
2. 새장안의 물은 운반시 새장 바닥에 업질러지면 분변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비우도록 한다.
3. 전반적인 새장의 위생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새장 및 새장안의 모이, 물통 등은 청소되지 않은 그대로 갖고 오도록 한다.
4. 운반중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새장을 수건 등으로 덮어서 운반하도록 한다. 추운날 차로 운반시에는 미리 차를 따뜻하게 해두는 것이 좋다.
5. 전에 주었던 모이와 현재 주고 있는 모이 및 치료에 사용하였던 약품들도 가지고 오도록 한다.

환조의 병력 : 환조의 병력에 관한 축주의 모든 정보가 다 중요하지만 새가 새장바닥에 쭈구리고 있거나 출혈, 음식을 토하는 것은 실제 응급상황으로 여겨야 한다. 또한 새 종류마다 특정질병에 잘 걸리는 경향이 있으므로 축주가 소유한 새종류를 알아야 한다. 가령 회색볼잉꼬(Grey cheek parakeets)는 *Mycobacterium avium*에 잘 감염되며 코카틸앵무새(cockatiels)는 egg-binding(알이 산란되지 못하고 총배설강에 붙어있는 상태)이 잘 일어난다.

병력청취를 할 때는 축주를 이끌어 나가는 질문은 삼가해야 하며 자유로이 생각해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해서 유효한 답변을 얻도록 해야 한다. 새장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 새를 놀라게 해 새의 상태를 관찰하기 어렵게 하지 않도록 하고 축주에게 현재 갖고 있는 질병에 대해 물어보면서 새의 상태를 관찰하도록 한다.

다음의 질문들은 병력자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 새가 아프기 시작한 때는 언제인가?
2. 전에 다른 질병은 없었는가? 있었다면 어떤 치료를 하였는가?
3. 새를 기르기 시작한지는 얼마나 되었는가?
4. 언제 그리고 어디서 새를 구입하였는가?

※수의과학연구소 계역과

5. 현재 또는 전에 다른 새를 갖고 있었는가? 다른 새들도 아픈가?
6. 다른 새들이 죽은 적이 있었는가? 그렇다면 부검 결과가 있는가?
7. 다른 새들(애완조류 클럽, 새시장, 애완조류상 등)과의 접촉이 있었는가? 언제 있었는가?
8. 모이는 무엇을 주는가?
9. 실제로 새가 무엇을 먹는가?
10. 새가 모이를 잘 먹는가?
11. 새의 나이는?
12. 암컷인가 수컷인가?
13. 새가 포획 또는 야생에서 잡아 기르는 것인가/수입된 것인가?
14. 새는 조련되어 있는가?
15. 배설물의 상태는 어떠한가? 이 질문과 관련해서 축주의 이해를 위해 배설물의 성분(뇨, 뇨산, 분변)을 설명해준다. 배설물의 성분과 양이 진단에 도움을 줄 수 있다.
16. 새가 날 수 있는가?
17. 새가 집에서 자유로이 날아다닐 수 있도록 키웠는가 아니면 새장에서만 키웠는가? 새장을 조사함으로써 많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다. 새장은 새에 있어서 최소한의 주거공간이다. 새장이 적절이 설치 또는 청소되지 않으면 질병에 걸리기 쉽다. 좋지 못한 새장 위생과 적절치 못한 식이가 조류 질병의 주원인으로 작용한다. 축주에게 주변환경에 대해서 꼭 물어보아야 한다.
18. 새장, 모이접시 및 물통은 얼마나 자주 청소하는가?
19. 새장 청소시 무엇을 사용하는가?
20. 어떤 종류의 새장을 사용하며 어디에서 구입하였는가? 납 성분이 함유된 페인트로 칠해진 철 새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새장안의 장난감도 검사해야 하는데 어떤 장난감들은 중금속 같은 유독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새들은 순간적으로 주변에 있는 것을 쪼아 입에 넣으므로 납, 아연, 독성식물, 담배꽁초, 쵸코렛 등의 유해한 물질들이 주변에 있었는지 확인한다. 바닥에는 신문지를 깔아두는 것이 좋으나 다른 것들도 많이 사용되므로 확인해야 한다. 옥수수의 속대, 호두껍데기, 나무를 잘게 부순 것 등은 새장안에서 세균, 곰팡이, 기생충 등의 성장을 촉진한다. 또한 이런 것들은 새가 삼켜서 모이주머니 또는 위장관의 폐색을 일으킬 수 있다.
21. 새가 어떤 종류의 사회적 접촉을 갖고 있는가?
22. 하루중 새와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23. 최근에 새와 같이 보내는 시간에 변화가 있었는가?

집안내 새장의 위치도 질병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가령 냉난방이 가동중인 상태에 있거나 연기가 가득한 부엌 옆에 새장이 위치할 수 있고, 개 또는 고양이가 접근해 스트레스를 주거나 직접적인 상처를 줄 수도 있다. 행동의 변화도 질병과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변화는 질병이 아닌 호르몬의 변동 때문에 나타나기도 한다.

보 정

누구도 적절한 보정없이 진단 또는 치료를 할 수 없다. 새를 적절히 다루지 못하면 새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축주로 부터 신임을 잃을 수 있다. 새를 보정할 때는 천정이 낮으며, 창문이 닫혀 있고, 환풍기가 없는 작은 방이 좋다. 전등은 쉽게 끌 수 있어야 하며 유사시에 대비해 망이 준비되 있어야 한다.

피리새(finches)나 카나리아(canaries) 같은 종류는 어두운 방에서 잡기 쉽다. 새가 호흡기성 질병이 있거나 비만인 경우 특히 호주산잉꼬(budgerigar) 같은 종류는 보정 도중에 죽을 수 있으므로 새를 잡기전 보정이 안전한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과장되어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보정중에 죽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보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정전에 할 일에 대해 미리 계획을 세운다. 칼깃을 검사해서 새가 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날 수 있는 새들은 새장안에서 보정하도록 한다. 새가 검사실에서 날아다니는 것을 잡으려고 하면 새에게 더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

보정 솜씨는 축주에게 신임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 새를 잘 다루면 축주는 앞으로의 검사 및 진료에 대해 더 호응적일 것이다. 보정하기전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축주에게 말해 주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축주는 보정으로 인해 자신의 새가 내뱉는 소리를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므로 미리 경고하지 않으면 축주는 두려워 할 것이다. 보정간에 새

의 상태에 대해 축주에게 설명해주고 검사를 통해 확인시켜 준다.

일반적으로 애완조류를 보정하는데는 타월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타월을 이용하면 손을 보호할 수 있고 새에게 상처를 입힐 가능성이 적어진다. 장갑이나 맨손으로 보정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장갑을 사용하면 보정시 감각이 무뎌지며 손과 비슷해 보여 손을 피하려고 하는 새를 보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타월을 사용해 보정할 때는 타월을 새의 등쪽에 놓고 안쪽으로 감싼다. 엄지와 검지로 원을 형성해 새의 목을 감싸고 아래턱을 잡아 머리를 몸으로 부터 신장시켜 목이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타월의 무게 때문에 새의 움직임이 덜하며 일단 머리가 보정되면 몸의 다른 부분은 자동적으로 보정된다. 때때로 새가 타월안에서 몸이 꼬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새를 바닥에 놓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때때로 실제적인 보정은 축주가 없을 때 하는 것이 좋을 경우도 있다. 어떤 축주는 새가 포획되는 것을 보고 정신을 잃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새장을 방음시설이 되어 있는 떨어진 방으로 데려가 축주를 안심시킨다. 날개가 손질된 새의 경우 축주로 부터 새장에서 새를 꺼내게 해서 건네받거나 바닥에 내려놓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 이것은 새가 보정을 피하려고 장난감이나 횃대에 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새가 주인에게 꼭 매달려 축주가 다칠 수 있으므로 축주의 팔 또는 어깨에 있는 새를 잡으려고 해선 안된다. 또한 탁자 위에 있는 새는 보정하려는 순간 날아가 바닥이나 벽에 부딪힐 수 있으므로 탁자 위에서 보정하지 않도록 한다.

새를 보정하면 모양이 이상해질 수 있다는 것을 축주에게 미리 일러두는 것이 좋다. 많은 새들 특히 마코앵무새(macaws), 노란목덜미 아마존(yellow-naped amazons), 겹노랑머리 아마존(double-yellow headed amazons)의 경우 잠깐의 보정에도 헐떡거린다. 계속해서 헐떡거릴 경우 검사에 들어가기전 안정을 취하게 한다. 또한 보정중에 잠깐 잠깐 쉬는 것도 좋다. 보정에 의해 깃털이 일어날 수 있는데 어떤 축주들은 깃털이 일어나면 보정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런 현상은 일시적이며 다시 원래대로 회복된다는 것을 축주에게 미리 일러주어서 이러한 오해를 방지한다.

마코앵무새(macaw)나 카카투앵무새(cockatoos)같이 얼굴에 깃털이 없는 새들은 보정시 흥분으로 얼굴이 붉게 될 수 있는데 수분내에 원상태로 회복된다. 또한 압력이 얼굴에 가해지면 멍이 생길 수도 있다.

기 초 검 사

검사는 수분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보통 2분내에 이루어진다. 검사는 간단하고 전반적이며 효율적이어야 한다. 검사중엔 축주와의 대화를 삼가고 보정에 의한 스트레스를 줄이며 검사효율을 높이도록 한다.

새를 보정하기전에 우선 새장에서 새의 움직임과 내용물 등을 관찰해야 한다.

검사과정중에 다음의 사항들을 관찰하도록 한다.

(1) 새가 실제로 피를 흘리는가?
(2) 음식을 토하는가?
(3) 새장안에 혈액이 있는가?
(4) 구토한 음식물이 거울, 장난감 또는 새의 머리에 있는가?
(5) 주인이 잡았을 때만 음식을 토하는가?
(6) 깃털이 일어나 있거나 몸을 떠는가?
(7) 새가 하품을 하거나 비루 또는 콧구멍위로 깃털이 엉겨있는가?
(8) 털이 없거나 혈액자국이 있는 부분이 있는가?
(9) 눈에서 분비물이 나오는가 또는 감고 있는가?
(10) 눈에 보일 정도의 종창된 부분이 있는가?
(11) 새가 헐떡거린다던지 개구호흡 등 숨쉬기에 어려움을 느끼는가?

실제적인 검사는 우선 눈에 보이는 질병부터해서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검사결과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야 하며 어떤 경우 이런 결과들은 축주로 부터 얻은 병력과 다를 수 있다. 가령 축주들은 자신의 새가 갑자기 아프다고들 하지만 검사결과 새가 야윈점 등을 통해 만성적으로 아파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경우가 있다.

Problem-oriented veterinary medical record는 체계적으로 질병에 접근하는데 있어 특히 중요하다. 경험이 부족한 수의사는 새를 대할 때 갖는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 개, 고양이의 진단시 방법을 새에게 적용하길 권

한다.

체계적인 검사에 앞서 깃털 및 피부의 일반적 상태와 호흡소리를 체크한다. 검사는 머리부분부터 시작해서 흉근, 날개, 총배설강순으로 해나간다. 머리부분에선 안비루(眼鼻淚), 종창 유무, 대칭성 등을 검사해야 한다. 부리의 경우 출혈, 부정교합(malocclusion), 골절 또는 창상유무를 살펴봐야 한다.

다음 가슴부분을 검사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용골의 끝부분은 명확하며 흉근은 용골의 복측선을 따라 평행해야 한다. 용골의 복측선은 촉진이 가능하며 어떤 축주의 경우 용골의 끝이 만져지는 걸로 새가 야위었다고 생각하나 잘못된 생각이다. 대부분의 경우 체중만으로 새가 야위었다거나 정상 또는 비만이라고 할 수 없으며, 체중은 그램단위까지 측정해야 한다.

날개의 경우 골절, 창상, 관절운동, 칼깃의 손질상태 등을 검사해야 한다. 복부를 촉진해봐야 하며 정상의 경우 내부장기는 촉진하기 어렵다. 흉골끝과 치골사이 간격이 넓으면 복부장기의 이상비대, 종양 또는 복수를 의심해본다.

총배설강 부분에선 깃털이 엉겨있는지 살펴 보고 발적, 종창 또는 출혈 유무를 검사한다.

축주교육, 병력청취, 검사, 진단, 치료의 일련의 과정은 상당한 시간을 요한다. 개와 고양이에서 보다 두배, 세배의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흔하다. 검사실에선 보조원의 보조로 많은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표준화된 병력청취 양식을 마련해 접수시 축주에게 작성하도록 하면 많은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Frank L : Basic Examination and Anamnesis In pet bird Practice : Avian/Exotics, 199? ; 237-241. 2. Charles VS, Richard BD : Caged Bird Medicine. 1st ed, Ames, Iowa : Iowa state university press, 1981 ; 31-37. 3. Margaret LP : Diseases of cage and aviary birds. Philadelphia : Lea & Febiger, 1969 ; 177-188. 4. William DA : Start at Square One-Avian History-Taking and Clinical Examination. : ***In the North Amer. Vet. Conf. Proceedings***, 1993 ; 717-718. 5. Harris JM : Avian Client Compliance : Seminars in Avian and Exotic Pet Medicine, 1993 ; 2:2-6.

High feline trypsin-like immunoreactivity in a cat with pancreatitis and hepatic lipidosis

JM Bruncer *et al*, *J Am Vet Med Assoc*, 210 : 1757~1760, 1997.

1.5년된 단모종 고양이를 구토와 황달때문에 검사했다. 임상병리학적 검사상 ALT, ALP, γ-GT와 총 bilirubin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 복강 초음파에서 췌장 좌완과 췌장 몸체는 저에코성이었고 적은 양의 복강삼출액이 보였다. 간은 비장의 에코와 유사한 정도의 고에코가 전체적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간의 지방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고양이의 trypsin-like immunoreactivity는 고양이에서 췌장염을 나타내는데 높은 유의성이 있다. 이 고양이는 crystalloid fluid로 치료했고 위관을 피하로 설치해서 단백질이 제한된 식이를 공급했다. 고양이의 상태는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나빠졌고 결국 안락사시켰다. 부검에서 의심이 되던 급성 췌장염과 간의 지방화를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 이경우 trypsin-like immunoreactivity의 측정이 췌장염이 의심되는 고양이에서 유용한 것으로 보여진다(초역 :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문 두 환).